

일반계고 및 직업계고 학생들의 의식 변화

윤종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서론

- “대학에 진학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입시 경쟁, 사교육 과열 등의 현상을 일으키며, 대학 진학률을 높임. 결과적으로 청년실업 상승, 중소기업 구인난, 일자리와 능력의 미스매치가 발생함(교육부, 2019a).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마이스터고 육성방안 마련, 2020년 마이스터고 학점제와 2022년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까지 고졸 취업 및 직업교육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음(교육부, 2019b).
 - 직업계고뿐만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전반적인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 비진학자를 위한 고교 단계 맞춤형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과정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들의 목표는 능력중심 사회의 구축 기반 마련과 고졸취업 및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을 활용하여 고졸취업 및 직업교육 정책이 활성화되기 전인 2004년과 활성화 이후인 2016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II.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의 기본 특성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I 1차(2004)년도 자료와 한국교육고용패널 II 1차(2016)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계고 및 일반계고 학생들의 진학과 직업에 대한 의식, 희망 교육 수준, 진로 및 계획, 기대 소득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분석 대상은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2004)년도 일반계고 2,000명, 전문계고 2,000명과 한국교육고용패널 II 1차(2016)년도 일반계고 5,943명, 직업계고 3,615명임.
 - 학교 유형은 일반계고와 자율고를 일반계고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직업계고로 분류하며,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표 1. 분석대상

(단위: 명, %)

유형		빈도	비율
2004년 일반계고		2,000	14.8
2004년 전문계고(직업계고)		2,000	14.8
소계		4,000	29.5
2016 일반계고	2016년 일반계고	5,393	39.8
	2016년 자율고	550	4.1
	소계	5,943	43.8
2016 직업계고	2016년 특성화고	2,595	19.1
	2016년 마이스터고	1,020	7.5
	소계	3,615	26.7
전체		13,558	100.0

주: 한국교육고용패널 I의 실업계고는 현재 특성화고로 변경되어 마이스터고와 함께 직업계고에 포함하였음.

-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고 확률 표집 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 조사 내용 및 내용별 응답자 유형은 아래와 같음.

표 2. 조사 내용 및 내용별 응답자 유형

조사 내용	응답 유형
희망 교육 수준	응답자 전체
졸업 이후 진로 계획	
졸업 이후 진로 미결정 이유	'졸업 이후 진로 계획'에서 '미결정' 응답자
희망 진학 대학 유형	'졸업 이후 진로 계획'에서 '대학 진학' 응답자
희망 전공/계열 선택 여부	
희망 전공/계열	'졸업 이후 진로 계획'에서 '취/창업' 응답자
졸업 직후 희망 월평균 소득	
취/창업을 위한 준비	
직업을 가지는 이유	응답자 전체
직업 생활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	

출처: 채창균 외(2004b).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2004) 설문지, 유한구 외(2016b). 한국교육고용패널 II 1차년도(2016) 설문지 참조.

Ⅲ. 분석 결과

□ 희망 교육 수준

- '대학교 및 대학원' 관련 희망 교육 수준은 소폭 하락했으며 '고등학교' 졸업은 큰 상승폭을 보임.
 - 일반계고는 '2년제 대학'과 '고등학교'가 각각 5.7%, 4.7% 증가했으며 다른 대학은 소폭 하락함.
 - 직업계고의 경우 '고등학교'가 8.4%에서 36.3%로 크게 증가했으며, '4년제 대학'이 43.4%에서 27.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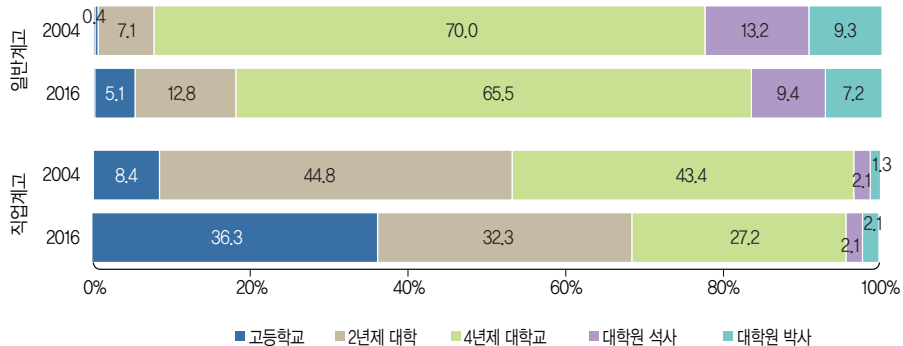
표 3. 희망 교육 수준

(단위: %, %p)

	일반계고			직업계고		
	2004년(A)	2016년(B)	변화(B-A)	2004년(A)	2016년(B)	변화(B-A)
고등학교	0.4	5.1	4.7	8.4	36.3	27.9
2년제 대학	7.1	12.8	5.7	44.8	32.3	-12.5
4년제 대학교	70.0	65.5	-4.5	43.4	27.2	-16.2
대학원 석사	13.2	9.4	-3.8	2.1	2.1	0.0
대학원 박사	9.3	7.2	-2.1	1.3	2.1	0.8
합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1. 희망 교육 수준

(단위: %)



□ 졸업 이후 진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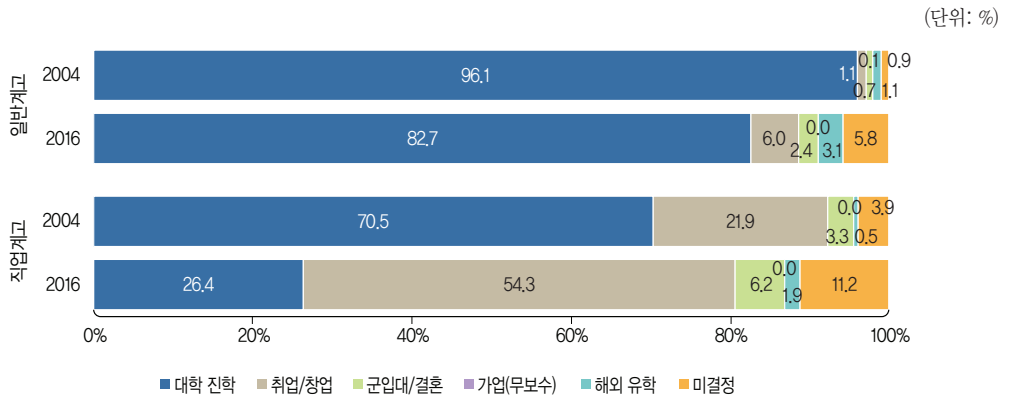
- 졸업 이후 진로 조사 결과 ‘대학 진학’이 크게 하락했으나 ‘취업/창업’은 크게 증가함.
 - 일반계고의 경우 ‘대학 진학’이 96.1%에서 82.7%로 낮아졌고, ‘취업/창업’은 1.1%에서 6%로 증가함.
 - 직업계고의 경우 ‘대학 진학’ 70.5%에서 26.4% 크게 낮아졌고, ‘취업/창업’은 21.9%에서 54.3%로 크게 높아졌음.

표 4. 졸업 이후 진로 계획

(단위: %, %p)

	일반계고			직업계고		
	2004년(A)	2016년(B)	변화(B-A)	2004년(A)	2016년(B)	변화(B-A)
대학 진학	96.1	82.7	-13.4	70.5	26.4	-44.1
취업/창업	1.1	6.0	4.9	21.9	54.3	51.4
군입대/결혼	0.7	2.4	1.7	3.3	6.2	2.9
가업(무보수)	0.1	0.0	-0.1	0.0	0.0	-
해외 유학	1.1	3.1	2.0	0.5	1.9	1.4
미결정	0.9	5.8	4.9	3.9	11.2	7.3
합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2. 졸업 이후 진로 계획



□ 졸업 후 진로 미결정 이유

- 졸업 후 진로 미결정 응답자에게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의 응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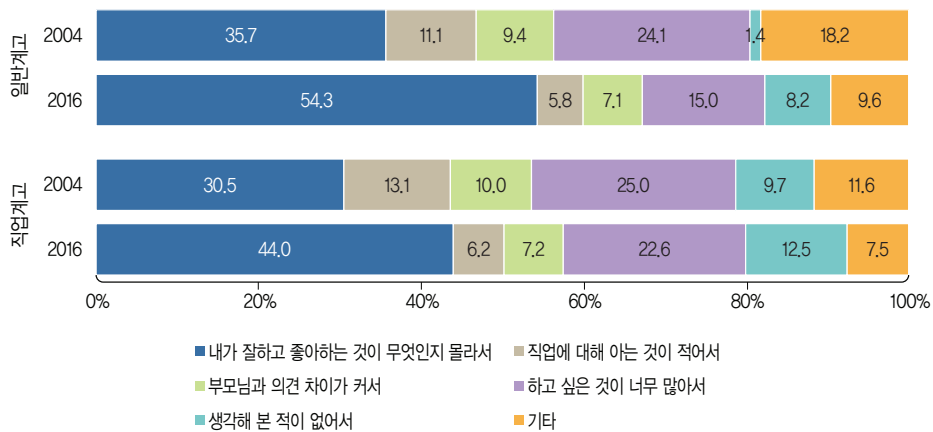
표 5. 졸업 후 진로 미결정 이유

(단위: %, %p)

	일반계고			직업계고		
	2004년 (A)	2016년 (B)	변화 (B-A)	2004년 (A)	2016년 (B)	변화 (B-A)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35.7	54.3	18.6	30.5	44.0	13.5
직업에 대해 아는 것이 적어서	11.1	5.8	-5.3	13.1	6.2	-6.9
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커서	9.4	7.1	-2.3	10.0	7.2	-2.8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24.1	15.0	-9.1	25.0	22.6	-2.4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1.4	8.2	6.8	9.7	12.5	-7.2
기타	18.2	9.6	-8.6	11.6	7.5	-4.1
합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3. 졸업 후 진로 미결정 이유

(단위: %)



□ 진학 희망 대학 유형

- 진학 희망 대학 유형 조사 결과 ‘주간 4년제’는 소폭 하락했고, ‘주간 2~3년제’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야간대학’과 ‘원격대학’은 2004년과 2016년 모두 1% 미만의 비율을 보임.
 - 일반계고의 경우 ‘주간 4년제’와 ‘주간 2~3년제’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조사·통계 브리프

- 직업계고의 경우 '주간 4년제'는 46.6%에서 50.4%로 증가했으며 '주간 2~3년제'는 50.3%에서 42.9%로 감소함.

표 6. 진학 희망 대학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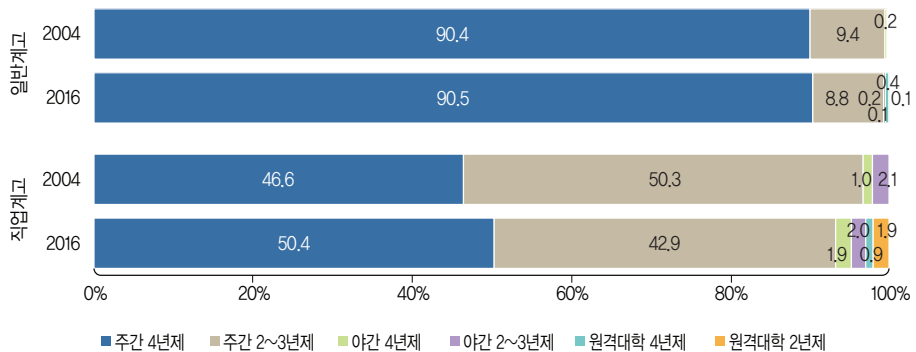
(단위: %, %p)

	일반계고			직업계고		
	2004년(A)	2016년(B)	변화(B-A)	2004년(A)	2016년(B)	변화(B-A)
주간 4년제	90.4	90.5	0.1	46.6	50.4	3.8
주간 2~3년제	9.4	8.8	-0.6	50.3	42.9	-7.4
야간 4년제	0.2	0.2	-	1.0	1.9	0.9
야간 2~3년제	0.0	0.1	0.1	2.1	2.0	-0.1
원격대학 4년제	-	0.4	-	-	0.9	0.9
원격대학 2년제	-	0.1	-	-	1.9	1.9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원격대학 4년제, 원격대학 2년제는 한국교육고용패널 II (2016) 문항에 추가된 보기임.

그림 4. 진학 희망 대학 유형

(단위: %)



주: 원격대학 4년제, 원격대학 2년제는 그림에 제시하지 않음.

□ 희망 전공/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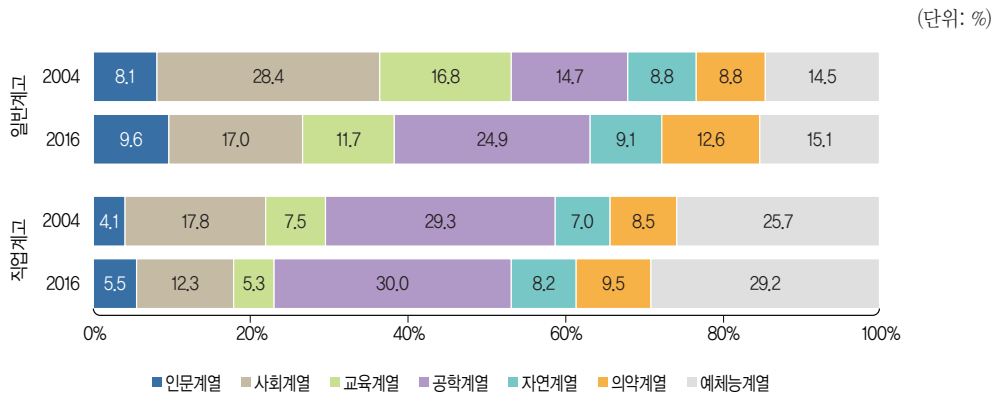
- 희망 전공/계열 조사 결과 ‘공학계열’, ‘의약계열’, ‘인문계열’ 선호가 증가했고, ‘사회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을 선호하는 비율이 낮아짐.
- 일반계고의 ‘공학계열’이 14.7%에서 24.9%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회계열’은 28.4%에서 17%로 크게 감소함.
- 직업계고의 ‘예체능계열’이 25.7%에서 29.2%로 증가하였으며, ‘사회계열’은 17.8%에서 12.3%로 감소함.

표 7. 희망 전공/계열

(단위: %, %p)

	일반계고			직업계고		
	2004년(A)	2016년(B)	변화(B-A)	2004년(A)	2016년(B)	변화(B-A)
인문계열	8.1	9.6	1.5	4.1	5.5	1.4
사회계열	28.4	17.0	-11.4	17.8	12.3	-5.5
교육계열	16.8	11.7	-5.1	7.5	5.3	-2.2
공학계열	14.7	24.9	10.2	29.3	30.0	0.7
자연계열	8.8	9.1	0.3	7.0	8.2	1.2
의약계열	8.8	12.6	3.8	8.5	9.5	1.0
예체능계열	14.5	15.1	0.6	25.7	29.2	3.5
합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5. 희망 전공/계열



□ 졸업 직후 희망 월평균 소득

○ 졸업 직후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일반계고가 직업계고보다 소폭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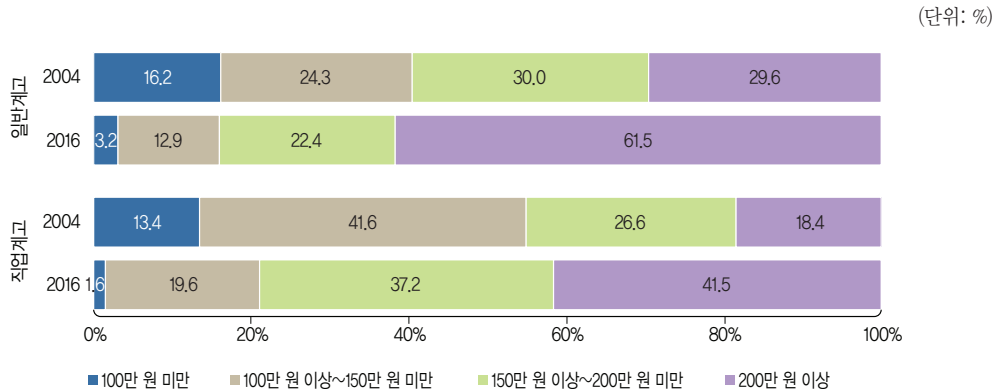
– 일반계고는 2004년에 145만 9,300원에서 203만 100원으로 증가했으며, 직업계고는 136만 9,800원에서 181만 4천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8. 졸업 직후 희망 월평균 소득

(단위: %, %p, 만 원)

	일반계고			직업계고		
	2004년 (A)	2016년 (B)	변화 (B-A)	2004년 (A)	2016년 (B)	변화 (B-A)
100만 원 미만	16.2	3.2	-13.0	13.4	1.6	-11.8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24.3	12.9	-11.4	41.6	19.6	-22.0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30.0	22.4	-7.6	26.6	37.2	10.6
200만 원 이상	29.6	61.5	31.9	18.4	41.5	23.1
합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145.9	203.0	57.1	137.0	181.4	44.4

그림 6. 졸업 직후 희망 월평균 소득



□ 취/창업을 위한 준비

- 취/창업을 위해 준비는 ‘학교공부’, ‘자격증 취득’이 증가했으며, ‘관련된 일 체험’과 ‘없음’ 하락하였음.
 - 일반계고의 경우 ‘학교공부’의 비율만 증가했으며 나머지 준비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낮아짐.
 - 직업계고의 경우 ‘학교공부’, ‘자격증 취득’이 증가했으며 ‘관련된 일 체험’, ‘없음’이 낮아짐.

표 9. 취/창업을 위한 준비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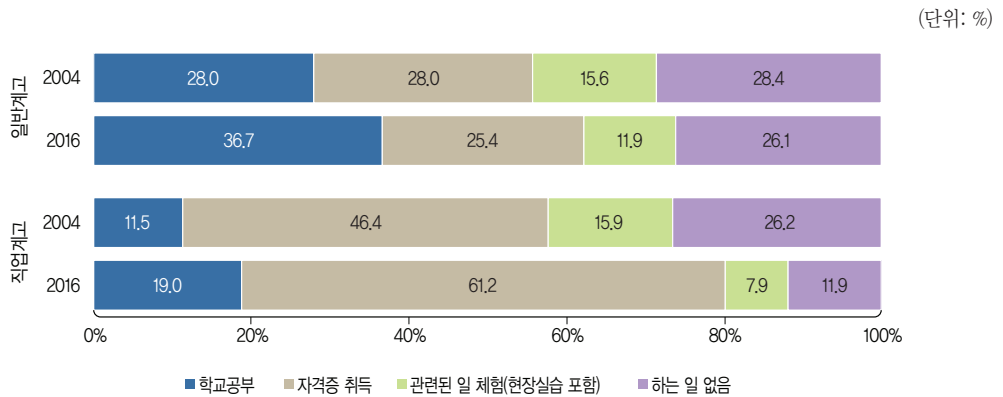
	일반계고			직업계고		
	2004년(A)	2016년(B)	변화(B-A)	2004년(A)	2016년(B)	변화(B-A)
학교공부	28.0	36.7	8.7	11.5	19.0	7.5
자격증 취득	28.0	25.4	-2.6	46.4	61.2	14.8
관련된 일 체험 (현장실습 포함)	15.6	11.9	-3.7	15.9	7.9	-8.0

〈표 계속〉

조사·통계 브리프

하는 일 없음	28.4	26.1	-2.3	26.2	11.9	-14.3
합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7. 취/창업을 위한 준비



□ 직업을 가지는 이유

○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직업을 가진다는 비율이 크게 감소했으며, '생계 유지', '자아실현', '사회 봉사'을 위해서라는 비율은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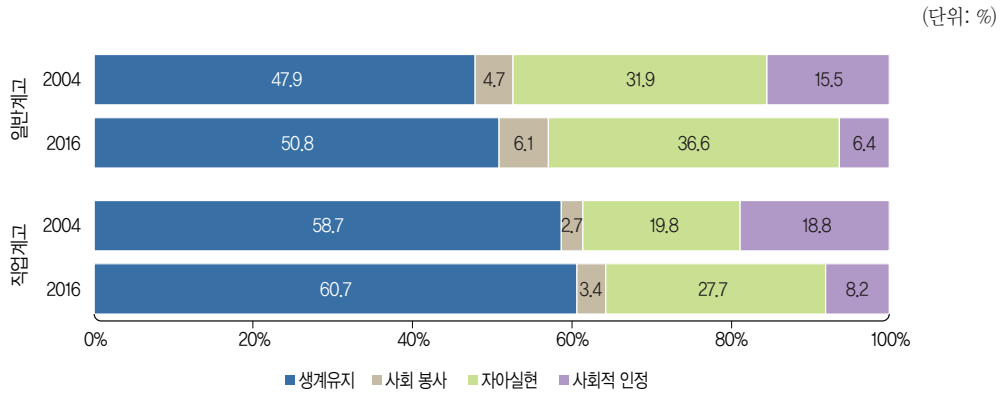
- 전체적인 변화 정도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에서 동일한 수준의 변화로 나타남.

표 10. 직업을 가지는 이유

(단위: %, %p)

	일반계고			직업계고		
	2004년(A)	2016년(B)	변화(B-A)	2004년(A)	2016년(B)	변화(B-A)
생계유지	47.9	50.8	2.9	58.7	60.7	2.0
사회 봉사	4.7	6.1	1.4	2.7	3.4	0.7
자아실현	31.9	36.6	4.7	19.8	27.7	7.9
사회적 인정	15.5	6.4	-9.1	18.8	8.2	-1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8. 직업을 가지는 이유



□ 직업 생활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

- 직업 생활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본인의 노력과 성실성’은 감소하였고, ‘본인의 능력’은 증가하였음. ‘돈(자본)’과 ‘운이나 요행’, ‘가정배경 및 인맥’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 직업 생활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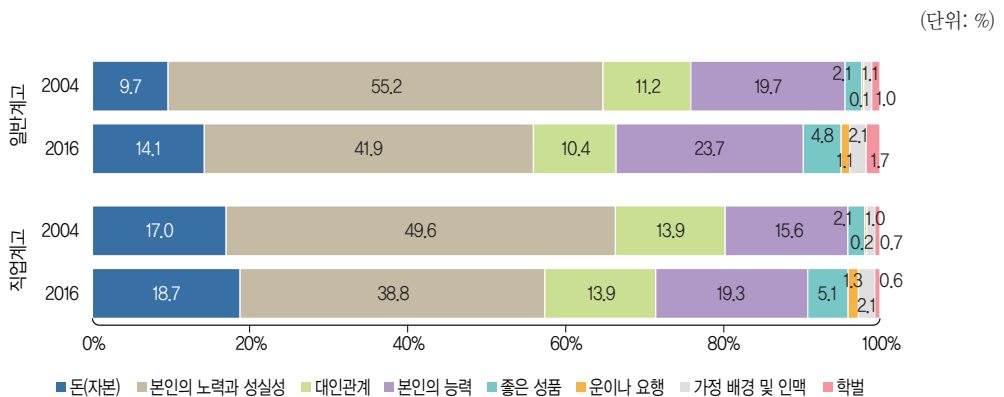
(단위: %, %p)

	일반계고			직업계고		
	2004년(A)	2016년(B)	변화(B-A)	2004년(A)	2016년(B)	변화(B-A)
돈(자본)	9.7	14.1	4.4	17.0	18.7	1.7
본인의 노력과 성실성	55.2	41.9	-13.3	49.6	38.8	-10.8
대인관계	11.2	10.4	-0.8	13.9	13.9	0.0
본인의 능력	19.7	23.7	4.0	15.6	19.3	3.7
좋은 성품	2.1	4.8	2.7	2.1	5.1	3.0
운이나 요행	0.1	1.1	1.0	0.2	1.3	1.1
가정 배경 및 인맥	1.1	2.1	1.0	1.0	2.1	1.1
학벌	1.0	1.7	0.7	0.7	0.6	-0.1

〈표 계속〉

기타	-	0.3	0.3	-	0.2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9. 직업 생활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



주: 기타 보기는 그림에 제시하지 않음.

IV. 요약 및 결론

□ 한국교육고용패널을 활용하여 고졸취업 및 직업교육 정책 활성화되기 이전인 2004년과 활성화 이후인 2016년의 일반계고 및 직업계고 학생들의 의식을 비교하였음.

○ 희망 교육 수준은 직업계고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까지라는 응답 비중이 크게 증가 (8.4% → 36.3%)하고 4년제 대학이 크게 감소(43.4% → 27.2%)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 일반계고 학생도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이 증가하고 4년제 대학이 감소함.


- 또한 졸업 이후 진로 계획에서도 직업계고의 대학 진학이 70.5%에서 26.4%로 감소하고, 취업/창업이 21.9%에서 54.3%로 증가함.

○ 진학 희망 대학 유형은 일반계고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업계고의 경우 ‘주간

4년제'가 46.6%에서 50.4%로 증가했으며 '주간 2~3년제'는 50.3%에서 42.9%로 감소함.

- 희망 전공 계열은 전체적으로 공학계열이 증가했으며, 사회계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계고의 '공학계열'이 14.7%에서 24.9%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회계열'은 28.4%에서 17%로 크게 감소함.
 - 직업계고의 '예체능계열'이 25.7%에서 29.2%로 증가했으며, '사회계열'은 17.8%에서 12.3%로 감소함.
- 졸업 직후 희망 월평균 소득 조사 결과 2004년 평균 137만 8,000원에서 2016년 188만 3,600원으로 증가했으며, 증가 폭은 일반계고가 12만 6,600원 정도 더 높았음.
- 취/창업을 위한 준비에서는 '관련된 일 체험'의 비율이 감소하고(15.9% → 9.2%), 학교공부 또는 자격증 취득이 증가함.
- 직업을 가지는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가 16.4% → 6.7%로 크게 감소했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아실현을 위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참여하기 위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함.
- 직업 생활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은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각각 '본인의 노력과 성실성'이 55.2% → 41.9%, 49.6% → 38.8%로 감소했지만 '본인의 능력'은 19.7% → 23.7%, 15.6% → 19.3%로 증가했고, '돈(자본)'과 '운이나 요행', '가정배경 및 인맥'은 두 집단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능력중심 사회 구축 기반 마련과 고졸취업 및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실제로 일반계고 및 직업계고 학생들의 의식에 영향이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음.**

- 다만 청년취업률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보완 연구가 필요함. 

참고문헌

- 교육부(2017). 일반고 비진학자에게 고교 단계에서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2017.3.16. 보도자료.
- 교육부(2018).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첫 지원. 2018.8.21. 보도자료.
- 교육부(2019a).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한「고졸취업 활성화 방안」발표. 2019.1.25. 보도자료.
- 교육부(2019b).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51개교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2019.8.21. 보도자료 별첨(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
- 유한구·김영식·류지영·신동준·이은혜(2016a).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한구·김영식·류지영·신동준·이은혜(2016b).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1차년도(2016) 설문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혜준·송창용·황성수·민숙원·백원영·이은혜·이지은·손희전·김혜정·박라인·윤종혁·금예진·김영식(2019).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20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선태 외(2017). 고졸취업 지원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민주홍·김승연·류지영·신동준(2004a).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200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민주홍·김승연·류지영·신동준(2004b).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1차년도(2004) 설문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2004)~12차(2015)년도 조사 사용자 지침서.

사람이 희망입니다.